

[경제]

M재테크
Money

환율 급변땐 수익률 2배 차이

작년 말 이후 해외펀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환율이 급변하면서 환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해외펀드에 가입 했다라도 환 해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익률이 배 가까이 벌어져 투자자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환 해지에 따른 수익률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환 해지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해외펀드 달러-원화 기준 수익률 차 2배 = 을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외 글로벌 펀드의 달러와 원화 기준 수익률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펀드평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36개 역외 주식형 글로벌펀드의 올들어 지난달 28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달러화 기준으로는 12.98%인데 비해 원화 기준으로는 5.43%에 그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연말 펀드에 가입하면서 당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

펀드 가입시 해지 가능 여부 확인을

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 해지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수익률이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멤릴린치의 뉴에너지펀드는 달러기준 수익률이 38.03%, 원화 수익률이 28.80%로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또 얼리아인스캐피털메니지먼트(ACM)의 'ACMGI Gbl Gth Trends A'의 경우 달러(9.25%)와 원화(1.95%) 기준 수익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경우는 환차손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더 심하다.

같은 기간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경우 달러화 기준으로는 3.10%의 수익률을 내며 반해 원화 기준 수익률은 -3.80%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 밖에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의 경

우도 달러화 기준으로는 평균 6.36%의 수익이 났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0.75%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원·달러 환율은 1천11.60원에서 943.40원으로 떨어졌다.

한국펀드평가가 이동수 애널리스트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입시 환 해지를 했을 경우라면 큰 폭의 환차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 해지 꼭 해야 하나 = 환 해지란 '환율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로 펀드 환매시 당초 계약된 환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선물환 거래를 해지 수단으로 활용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 해지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투자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또는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또는 손실)을 합한 금액이다.

환 해지를 할 경우 해외 자산과 환율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달러화 기반의 펀드에 원금 1만 달러를 투자해 선물환 계약이 달러당 1천원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환매할 때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원금 1만 달러에 원·달러 환율 1천원을 적용해 1천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환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940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환매 원금은 9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한 지역에 '몰빵'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분산했을 경우 '통화간 분산' 효과가 발생해, 따로 환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환율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 해지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의도와 함께 환율

에 대한 정확한 전망으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환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거나, 단기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환 해지를 통해 환차손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 해지 어떻게 하나 = 그렇다면 펀드 가입시 환 해지는 어떻게 할까.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내부적으로 환 해지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따로 환 해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역외 펀드 역시 펀드에 가입시 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창구 직원에게 환 해지를 요청하고 선물환 계약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환 해지 신청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판매사별로 해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상선 유상증자 앞두고

현대家 긴장 고조

5%이하 주주 파악 촉각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 매입을 적극적 M&A의 시도로 규정한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과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현대상선 유상증자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18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기준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청약을 받는다.

현대그룹은 유상증자를 위해 19일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지분 5% 이하의 주주들이 파악돼 현대중공업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여전히 '백기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베일에 가려졌던 5% 이하 주주들의 면면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물려 지분을 매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유상증자에서 기준 주주에는 주당 0.23주가 배정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이 배정받을 수 있는 현대상선 주식은

640만주 정도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유상증자에서 이 물량을 배정받지 않으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분은 20% 초반대로 낮아지지만 현대그룹은 우호지분이 40%대를 넘을 수도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 주 현대중공업그룹측에 "현대상선의 백기사를 자처한다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현대중공업그룹은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따를 뿐"이라며 즉답을 피하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그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 지분 인수 목적을 '현대상선을 외국인 M&A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가치 극대화'도 내세우고 있어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그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현대그룹의 강력한 반발과 "당초 해명과 달리 적극적 M&A 시도가 노골화됐다"는 여론공세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에서 기준 주주에는 주당 0.23주가 배정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이 배정받을 수 있는 현대상선 주식은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현대차·한화 '울고'… SK·GS '웃고'

10대 그룹주 엇갈린 명암

올 들어 10대 그룹주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얼굴 표정도 극명히 치러졌다. 현대차와 한화 등 일부 그룹 상장사에 투자한 이들은 물상인 반면 SK와 GS, 현대중공업그룹에 투자한 이들은 희색이 만연하다.

◇현대차그룹 시가총액 감소세 최고 = 현대차그룹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51조253억원에서 이달 4일 43조3천108억원으로 15.12% 줄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한화그룹 주주들 역시 올 들어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8개 한화그룹 주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4조6천84억원에서 이달 4일 4조9473억원으로 14.15% 감소했기 때문이다.

◇SK·현대重·GS그룹 주가 '껑충'

=반면 SK, 현대중공업, GS그룹 주주들은 올 들어서만 평균 3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해 표장 관리에 넘어서 있다.

16개 SK그룹주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27조8천556억원에서 35조6천5억원으로 27.80% 늘었다. 고유가에 힘입어 SK(주)가 39.92% 뛰어올랐고 SK텔레콤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27.62%나 올랐기 때문이다.

◇LG그룹, 시가총액 순위 2위 '탈환' =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은 21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45조283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51% 들어나는데 그쳤다.

LG그룹도 시가총액(44조4천593억원)이 4.05% 감소했으나 시가총액 순위는 현대차그룹주의 급락 영향으로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해외펀드 '환 해지' 어떻게 하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한국, 59개 품목서 1위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5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유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현재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HS 6단위 기준)은 59개로 2003년보다 3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은 섬유 및 의류 20개, 철강 9개, 선박 4개, 가전 1개, 무선통신기기 1개 등이었다.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개수가 세계 17위였으며 이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순위로는 10위였다.

한국의 수출시장 1위 품목 중에는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뛰어나 선도산업군에 속한 것이 25개였다.

신흥산업, 쇠퇴산업, 성숙산업에 속한 품목은 각각 5개, 17개, 12개였다.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 선박, 휴대폰 등이 선도산업군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품목의 점유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시장 점유율 2위 제품과 점유율 격차는 평균 10%이며 5% 미만인 품목이 20개인 반면 30% 이상인 품목은 4개에 그쳐 수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가구당 연 보험료 413만원

보험개발원, 전국 1,200가구 조사

가구당 연간 보험료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7일 전국 1천200가구의 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연간 납입보험료는 생명보험 335만3천원, 손해보험 77만7천원 등 41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조사 때 가구당 연간 납입보험료 382만원(생명보험 298만원, 손해보험 84만원)보다 8.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34만4천원으로 생명보험에서는 변액보험(26만4천원), 저축성보험(20만6천원), 연금보험(14만7천원), 건강보험(10만8천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손해보험에서는 저축성보험(16만원), 통합보험(10만8천원), 상해보험(9만9천원) 등의 순이었으며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61만3천원이었다.

보험가입 때 선호하는 경로를 보면 모든 상품에서 설계사가 52%(저축성보험)~75.5%(자동차보험)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은 4%(저축성보험)~13%(자동차보험), 휴대폰은 0.4%(자동차보험)~8.6%(건강보험)였다.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한은 발표, 4월 물가 지수 111.8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4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는 111.8로 전달(111.0)에 비해 0.7%, 지난해 같은 달(110.2)에 비해 1.4%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과 12월에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올 들어 1월 다시 0.6% 오른데 이어 2월에는 보합세를 나타낸 뒤 3월에 0.1% 올랐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오른 것은 농림수산물과 서비스부문의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원유, 동, 니켈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석유제품과 금속 1차제품 등의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과 공산품이 각각 0.8%와 1.0% 올랐으며, 서비스도 0.3% 상승했다.

/연합뉴스

대형 디지털TV 경쟁 치열

LG전자, 55인치 국내 출시 임박

LG전자가 조만간 국내시장에 55인치 PDP TV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대형사이즈에서 TV업체에서 대형 디지털TV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LG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50인치 이상 대형 디지털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 중순부터 일본 히타치사의 패널을 수입해 55인치 PDP TV를 제조,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